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 신규 참여자 93명 명패 각인



△ 명패 설치 완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동학농민혁명 신규 참여자로 의결된 93명의 명패를 각인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모관에 새롭게 모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2004년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3,908명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 2월, 2023년~2024년에 유족의 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직권 조사로 의결된 참여자 93명에 대한 명패를 새로이 각인하여 추모관에 봉안하였습니다.

추모관에는 오석(烏石)에 새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패가 가나다 순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터치패드를 통해 녹두꽃 영상으로 현화할 수 있고, 한쪽 벽면에는 추모영상이 상시 재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회 운영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에 관한 업무는 특별법에 따라 기념재단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또는 유족등록과 관련한 신청 문의는 기념재단 연구조사부(063-530-9434~5)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